

#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도입 현황과 향후 보완과제 토론

황현철 박사

Gargoyle Group

# Summary

## 1. 현재 왜 한국시장에서 헤지펀드가 필요할까?

- 헤지펀드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벤처를 육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고,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

## 2. 현재의 도입 제도가 부작용을 적절히 차단하면서 그 필요이유를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는가?

- No.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대형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게만 헤지펀드 허용함으로써 금융벤처의 진입 차단

## 3. 개선방안

# Comment

- 규제방향 : 시스템리스크 방지 & 투자자보호
- 헤지펀드의 시스템리스크는 거의 없음.
  - 영국의 FSA는 최근 보고서에서 헤지펀드의 시스템리스크는 없다고 밝혔음
  - 현재 대부분 헤지펀드가 파산한다고 해도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크지 않음
  - 헤지펀드보다 ETF의 시스템리스크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
- 투자자보호 측면에서의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함
  - 공인된 자산보관, 관리서비스 이용 및 회계감사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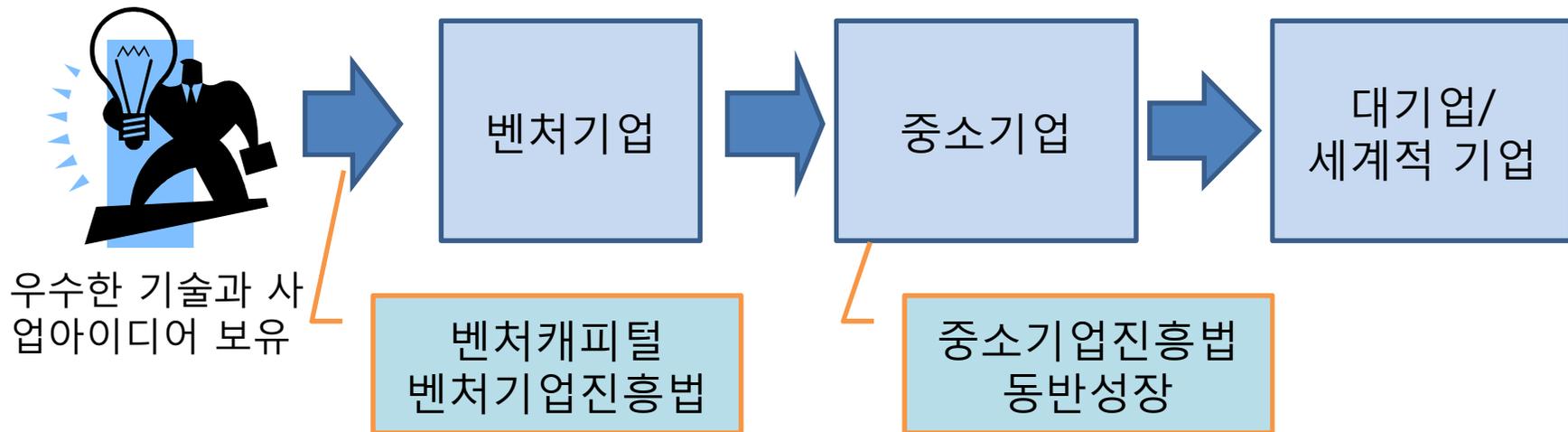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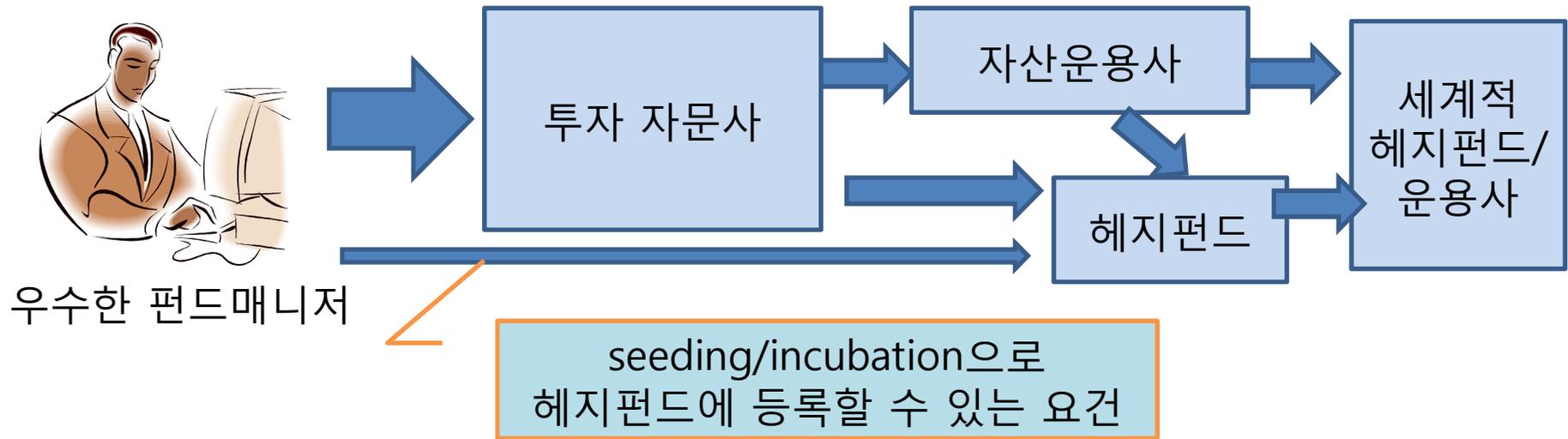
# 헤지펀드 규제 trend: IOSCO 6대 원칙

1. 헤지펀드와 그 운용자에 등록의무를 부여할 것
2. 등록대상 헤지펀드와 운용자에게 a. 조직과 운영 기준, b. 이해상충과 영업행위규칙, c. 투자자에 대한 공시, d. 건전성 규제에 대한 규제 준수 의무를 부여할 것
3. 헤지펀드에 자금을 공여하는 은행과 프라임브로커는 등록의무와 규제 및 검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,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과 헤지펀드에 노출된 자신들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감시할 통제수단을 갖추어야 할 것
4. 헤지펀드 운용자와 프라임브로커는 관계 당국에 시스템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(시스템리스크의 적출, 분석, 완화조치 포함)
5. 감독당국은 모범 영업행위준칙을 개발·시행하는 것을 고무하고 고려할 것
6. 감독당국은 글로벌 헤지펀드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완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과 정보교환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할 것

# Comment : 제도 개선방안

- 진입규제 개선: AUM 과 자본금 기준의 헤지펀드 인가를 등록 후 AUM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로 변경
- 개인투자자 자격요건 : 현행 최소투자금액에 의한 요건 보다는 금융투자자산, 개인소득 등의 자격요건 후 최소 투자금액은 펀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
- 판매프로세스 : UCITS과 같은 요건 만족 시 직접판매
- 해외사의 한국형 헤지펀드 설립요건 모호
- 운용규제는 PB를 통한 간접규제로 전환
- 점진적 제도 개선의 로드맵 마련
- 한국형 헤지펀드의 현행제도가 산업으로서의 자산운용업의 growth process를 지원해야 함
  - 헤지펀드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Seeding이 가능한 구조

# 금융벤처로서 헤지펀드



Recent Trend of Hedge Fund

한국형 헤지펀드 발전 방안

# Recent trend of hedge fund

- Hedge fund의 mutual fund 화 & mutual fund 의 hedge fund 전략 도입
-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이에 대한 반발
- Volker rule에 의해 prop trading 부서의 분사 또는 운용인력의 헤지펀드로의 이동
- 연기금의 헤지펀드 투자 증가
  - ❖ 개인투자자 비중 : 2000년 54% → 2010년 24%
- 헤지펀드 전략의 보수화

# 한국형 헤지펀드 발전방안

- 한국형 헤지펀드의 이상적인 성공모델은 무엇일까?
  - 주 고객은?
    - 글로벌 헤지펀드의 고객은 개인에서 연기금으로 이동 중
  - 주요 시장 및 상품: 한국주식 & 채권시장은 이미 포화. 기존의 자문사나 운용사와 운용기법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.
  - 전략 : 연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만족할 다양한 전략, 다양한 시장/상품을 대상
- 해외자산 운용 시장으로 진출해야하며, 국내투자자 뿐만 아니라 해외 국부펀드, 연기금 자금도 유치할 수 있는 **글로벌 헤지펀드**로 발전해야 함. → 헤지펀드에서의 Apple 사.
- 헤지펀드 Seeding/Incubation에 대한 지원
- 인력과 전략에 대한 가치 인정